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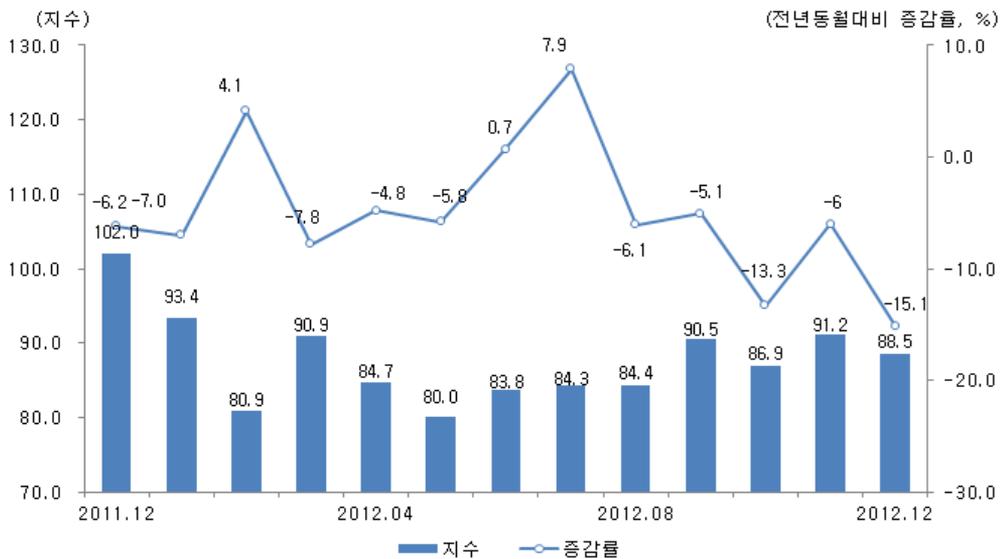
소비	<p>서울의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8% 감소로 2012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p> <p>12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3,518억원(64.8%), 대형마트 판매액은 7,337억원(35.2%)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것은 백화점의 경우 패션용품이 59.2%, 대형마트는 식품이 55.1%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가 1위, 그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인 것으로 나타났다.</p>
고용	<p>서울의 12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하락, 실업률이 하락하였다.</p> <p>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폭은 줄었으나 약1년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여전히 시급함을 시사하였다.</p>
물가	<p>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으로 4개월 만에 연 1%대 상승세로 진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1.2%,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7.6% 상승하였다.</p> <p>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 중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7.8% 상승하는 등 타 품목에 비해 상승폭이 커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 등과 같은 대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부동산	<p>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4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전세가격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고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지역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p>

| 생·산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 하반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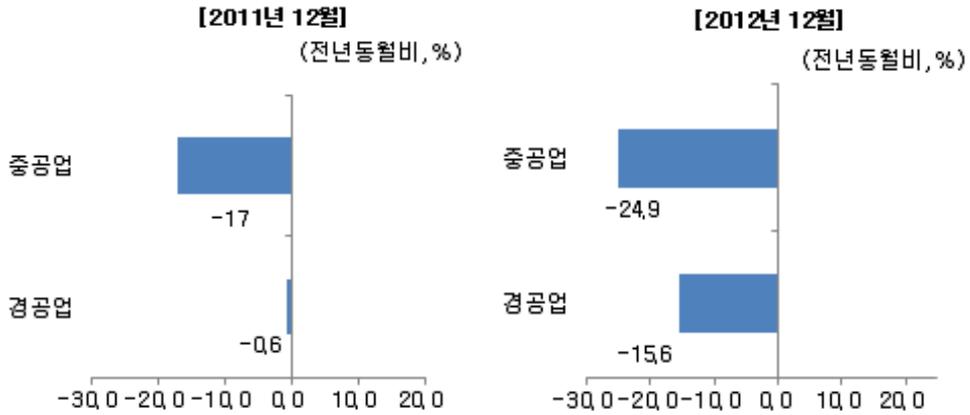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 2012년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세의 연속

- 서울의 12월 산업생산지수 88.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5.1% 감소
- 중공업 부문과 경공업부문 모두 각각 전년동월대비 24.9%, 15.6%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8.5%) 증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4.3%), 의복 및 모피(-21.4%), 인쇄 및 기록매체(-10.8%) 각각 감소
- 중공업과 경공업 모두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2012년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세 심화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1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54.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제조업 생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반도체 및 부품(17.1%), 영상음향통신(9.8%), 화학제품(3.4%) 증가
- 반면, 기계장비(-15.4%), 비금속광물(-12.6%), 자동차(-6.2%) 등에서 각각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문과학기술(-3.1%), 협회수리개인(-1.0%), 교육(-0.3%)에서 감소하나 하수폐기물처리(5.2%), 보건·사회복지(4.6%), 부동산임대(2.4%)등에서 증가하여 총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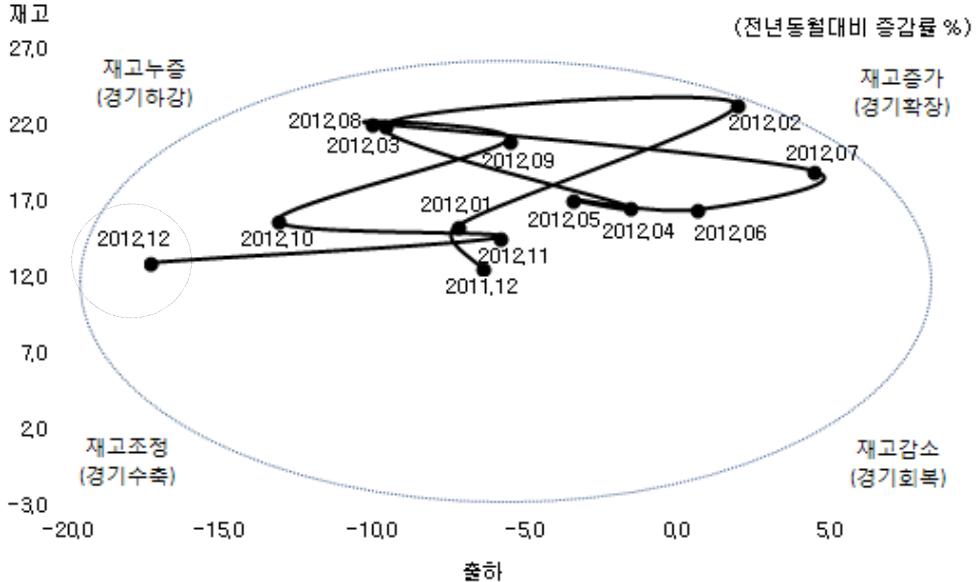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12월 제조업부문 재고누중 단계

- 서울의 12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각각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205.1(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2.9% 증가
 - 서울의 11월 출하지수는 84.2(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7.5%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중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감소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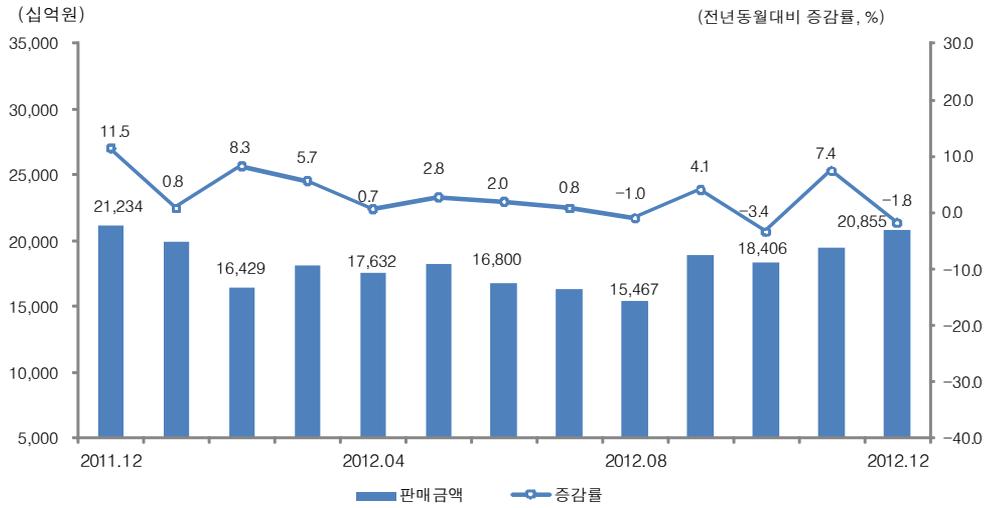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85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은 0.3% 감소, 대형마트는 4.4% 감소
- 품목별 판매순위는 패션용품이 44.3%(9,234억원), 식품이 26.9%(5,616억원), 생활용품이 17.0%(3,557억원) 판매

■ 서울의 12월 백화점의 판매순위 1위는 패션용품, 대형마트는 식품

- 백화점 판매액은 1조3,518억원(64.8%), 대형마트 판매액은 7,337억원(35.2%) 집계
-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482.8억원이며, 대형마트는 100.5억원임
- 백화점 판매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9.2%)이며, 대형마트는 식품(55.1%)이 차지
-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40.5%인 5,475억원을 판매,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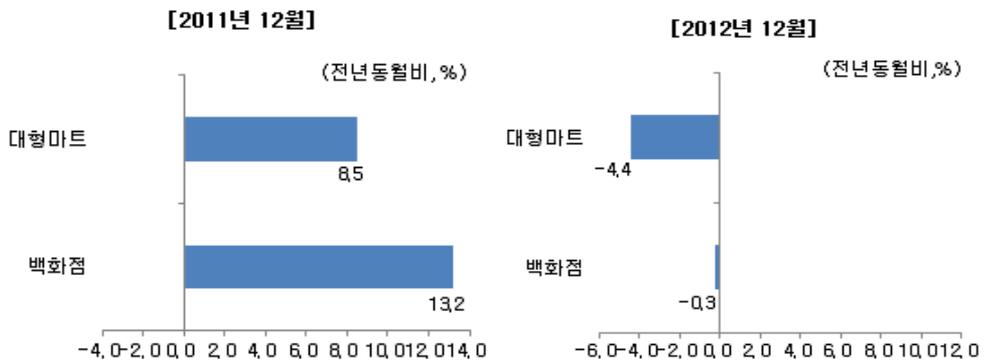
■ 전국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7%, 대형마트는 2% 각각 증가
- 유형별로 의복 등 준내구재는 0.3% 감소, 승용차 및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9.8% 증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2.5%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제·활·동·인·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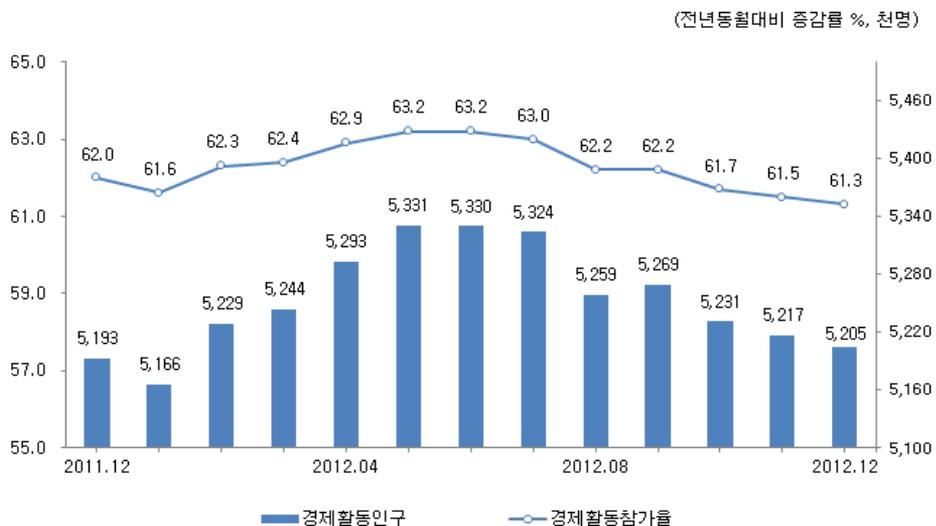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서울의 12월 15세 이상 인구는 8,49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0천명(1.4%)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0.2%)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8천명(3.4%)이 증가

■ 전국의 12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전국의 12월 15세이상인구는 4,18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만4천명(1.4%)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1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9천명(1.0%)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75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1천명(0.7%)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37만9천명으로 15만8천명(1.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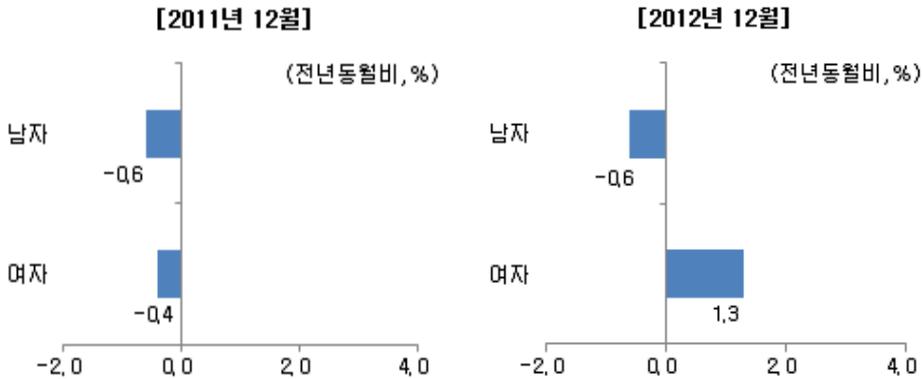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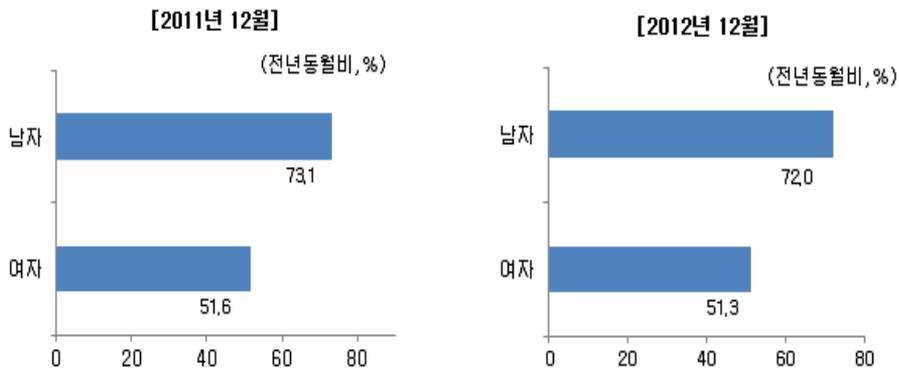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인구 남자 하락, 여자 증가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47명, 여자는 2,2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6% 하락, 여자는 1.3%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2.0%, 여자는 51.3%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1.1%p, 0.3%p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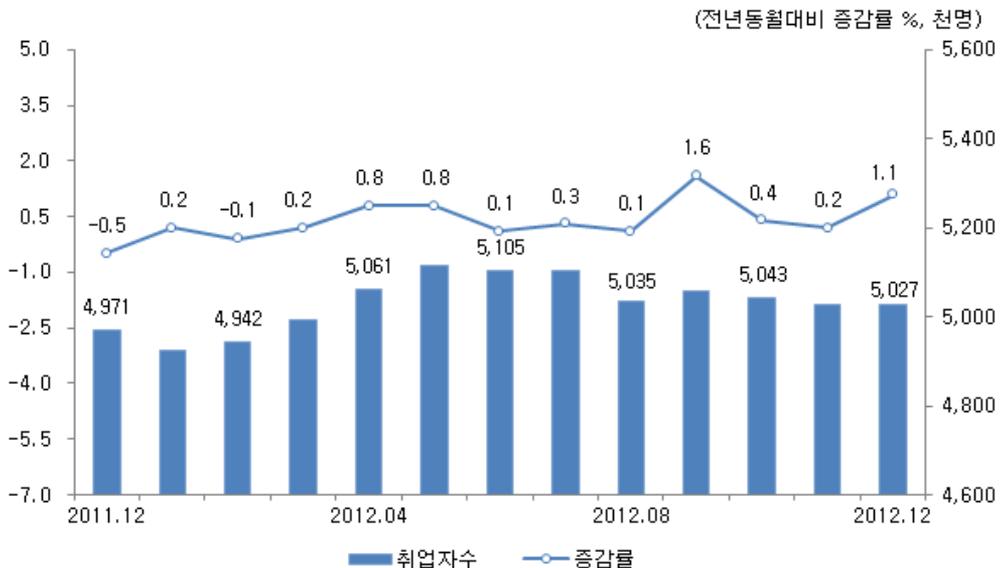
서울의 12월 전체 취업자 수 9개월 연속 약 5천명

■ 서울의 12월 여성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12월 취업자는 5,02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천명(1.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34천명, 여자는 2,1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천명(0.1%) 증가, 여자는 54천명(2.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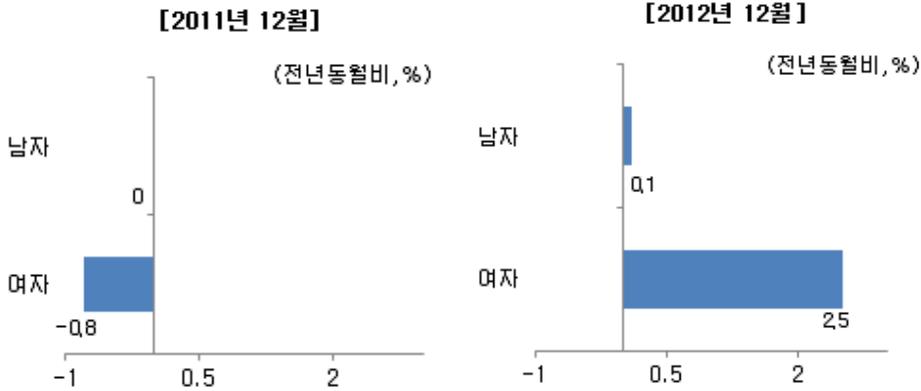
■ 전국의 12월 남, 녀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12월 취업자는 2,440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7천명(1.1%)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7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1천명(0.6%), 여자는 1,012만5천명으로 18만6천명(1.9%)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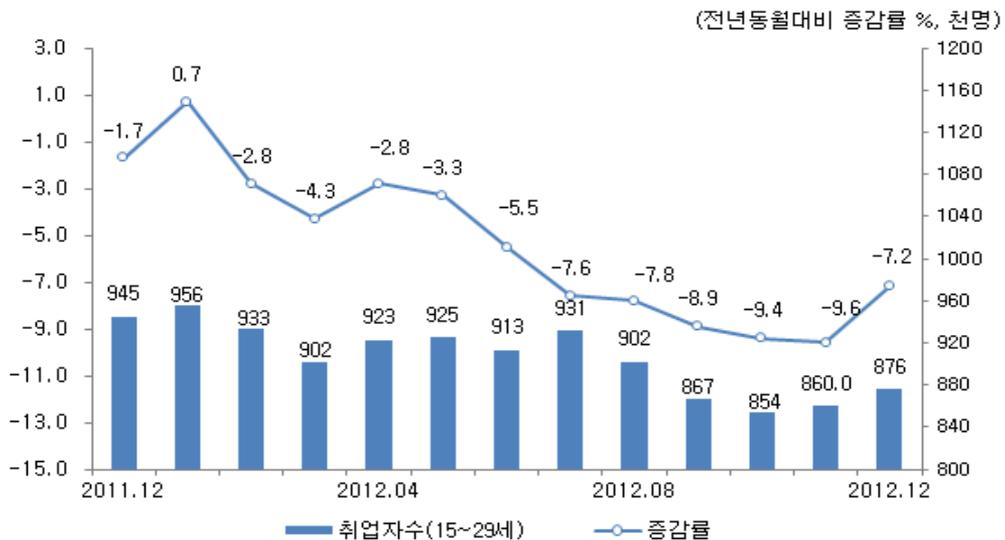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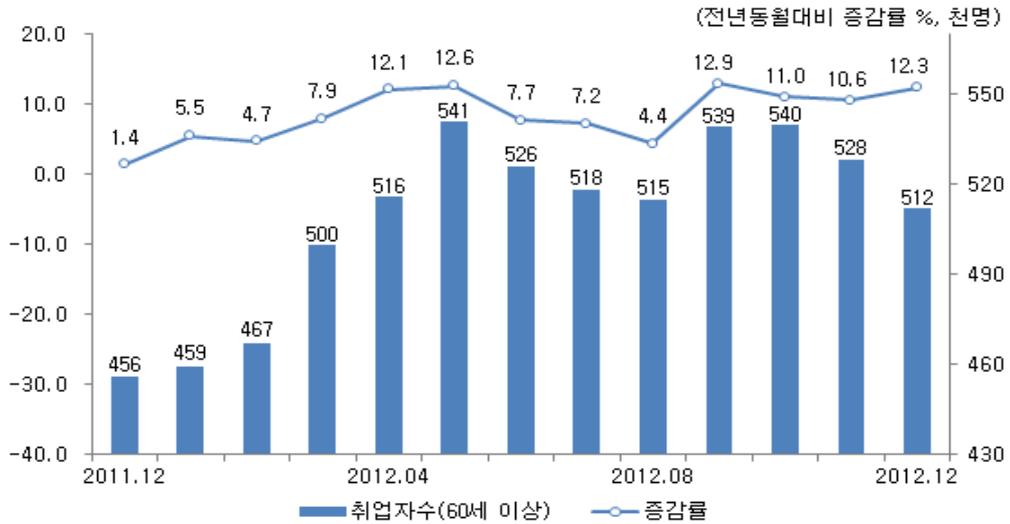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 서울의 12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12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하며 11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폭 감소
 - 서울의 12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3%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2천명(-28.6%), 건설업 27천명(-7.2%), 제조업 33천명(-6.4%), 도소매음식숙박업 5천명(-0.3%)은 각각 감소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19천명(6.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천명(0.4%)은 각각 증가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관리자·전문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41천명(4.0%), 서비스·판매종사자 12천명(1.0%), 관리자·전문가 11천명(0.8%)이 각각 증가
-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4천명(-4.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천명(-0.5%)은 각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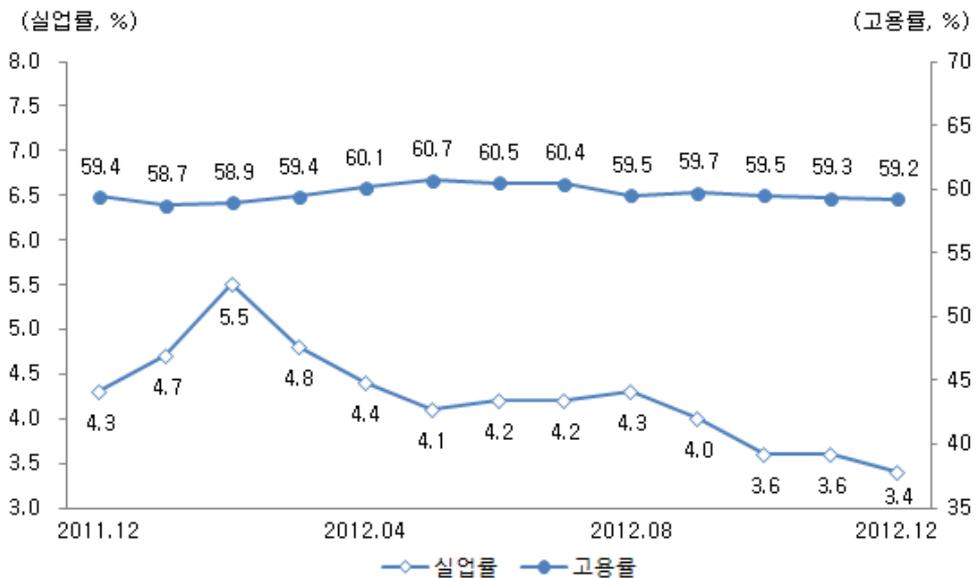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감소, 상용·일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8천명(-3.9%),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명(-3.9%)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85천명(3.7%), 일용근로자는 43천명(11.2%)이 각각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27천명(-2.4%) 감소

| 고·용·률·및·실·업·률

서울의 12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실업률 각각 하락

- 서울의 12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2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2%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여자는 49.8%로 0.3%p 증가
 - 2012년 12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58.3%)에 비해 0.9%p 높은 수준
- 서울의 12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12월 실업자는 1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천명(-20.0%)이 감소
 -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로 전년동월대비 0.6%p, 여자는 2.9%로 1.1%p 각각 하락
 - 2012년 12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2.9%)에 비하여 0.5%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12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1%대 상승세로 진입

■ 서울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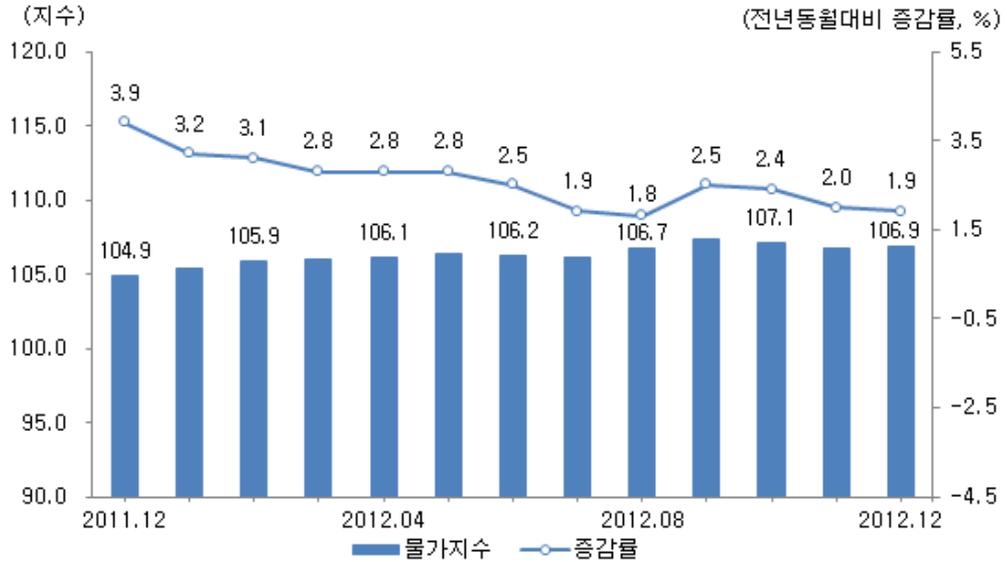
- 1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6.9(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통신부문은 변동 없으며 (0.0%),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3.7%)을 제외하고 그 외의 부문은 모두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그 중 농축수산물은 0.5%, 공업제품은 1.5%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그 중 집세는 3.2%, 공공서비스 2.5% , 개인서비스 1.2% 각각 상승

■ 서울의 12월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는 1.2%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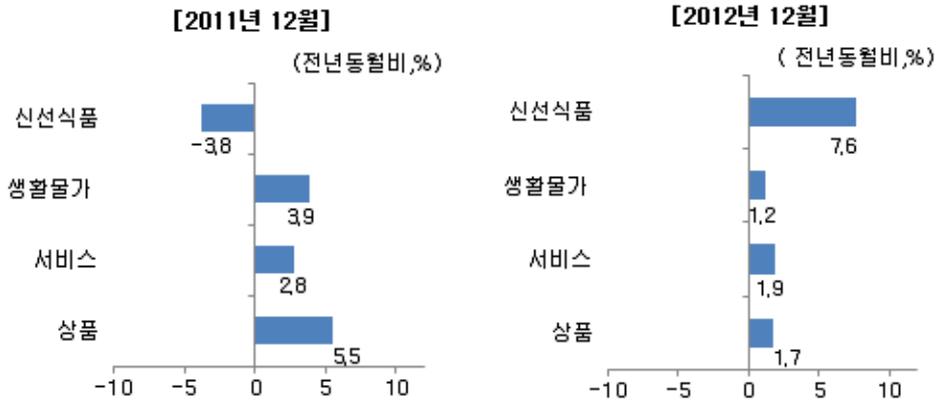
■ 전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7(2010년=100)로 전년동월대비로 1.4%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 부산 등 6개 시도는 1.4~1.9%씩 상승, 광주, 울산, 경기, 전북 등은 1.0~1.2%씩 상승, 대전, 경남, 제주는 0.8%씩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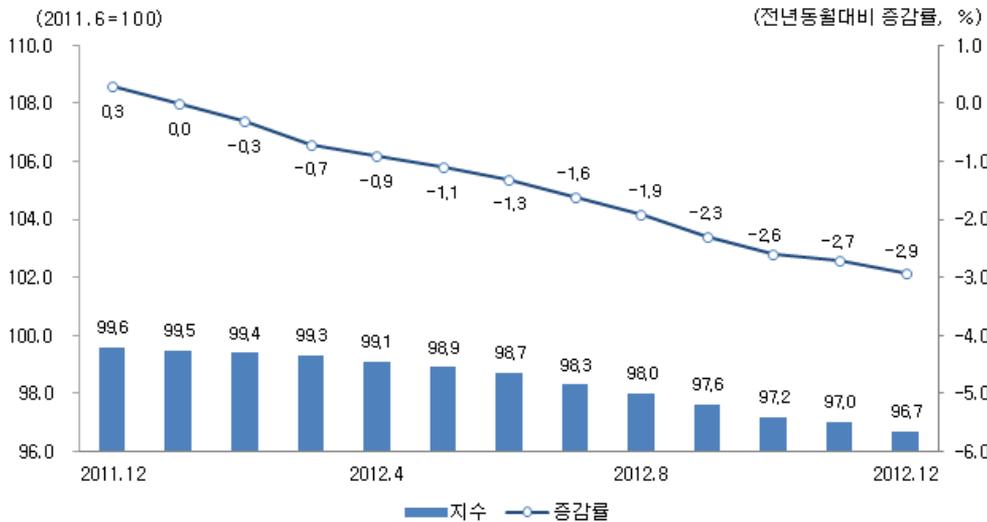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서울의 12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강남지역에서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0.2%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각각 0.4%, 0.1% 하락

■ 전국의 12월 주택매매가격 수요 부진으로 6개월 연속 하락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계절적 비수기로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며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6개월 연속 하락세
- 수도권은 매매거래 부진이 심화되면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전월대비 0.2%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전월대비 보합,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0.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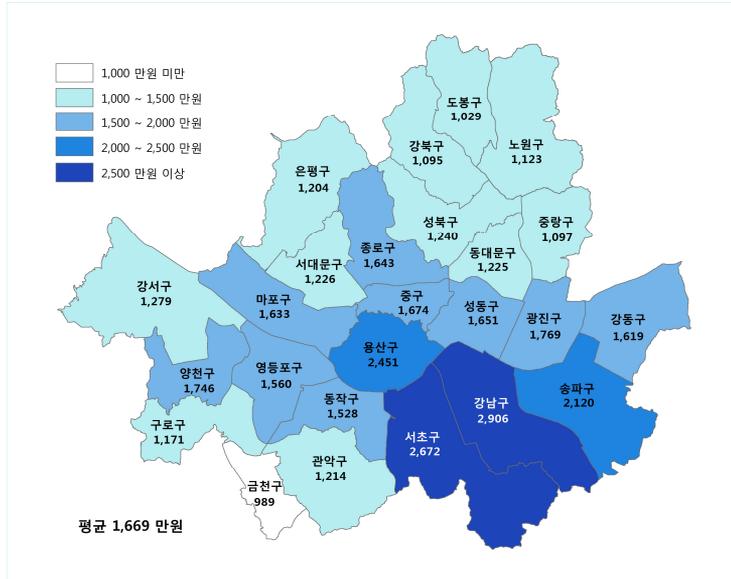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서대문구와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원구, 도봉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노원구는 인근 남양주시 별내지구로 입주해야하는 세대들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세 부진으로 급매물 해소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전월대비 0.4% 하락
 - 도봉구는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어 거래 위축세가 심화되며 전월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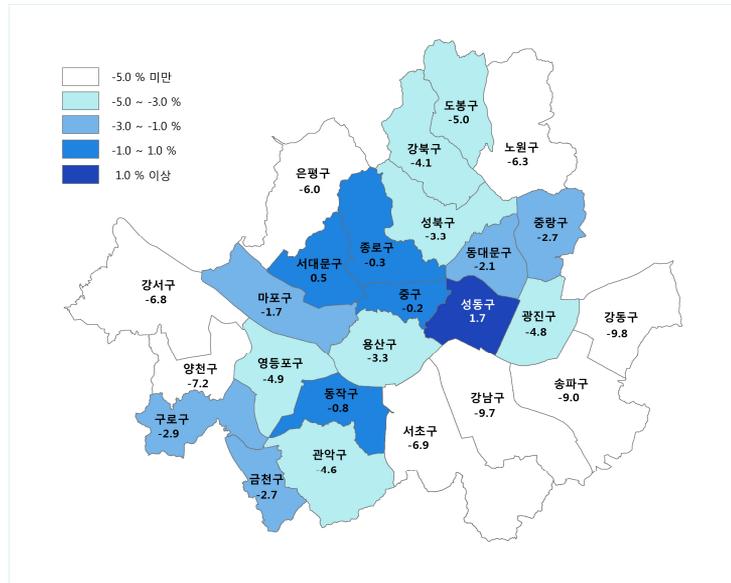
- **강남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월대비 0.3% 하락**
 - 송파구는 2012년 말까지 시행되는 세제감면 혜택에도 전반적인 수요 위축세가 장기화되며 전월대비 0.5% 하락
 - 강남구는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시장이 더욱 한산해진 가운데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전월대비 0.5% 하락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668.5만원으로 전월대비(1678.2만원)대비 하락하여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11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2,906만원), 서초구(2,672만원), 용산구(2,451만원), 송파구(2,120만원), 광진구(1,769만원), 양천구(1,74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89만원), 도봉구(1,029만원), 강북구(1,095만원), 중랑구(1,09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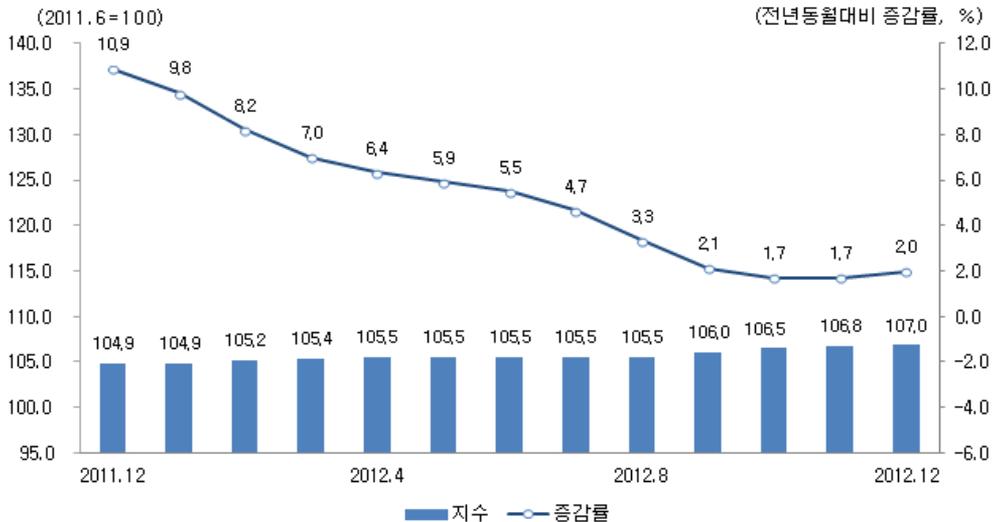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며 4개월 연속 상승

■ 서울의 1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며 전월대비 0.2% 상승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포함인 반면,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2% 상승

■ 전국의 12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고 하락세를 지속하는 매매와는 달리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대비 0.2% 상승
- 수도권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전월대비 각각 0.2%,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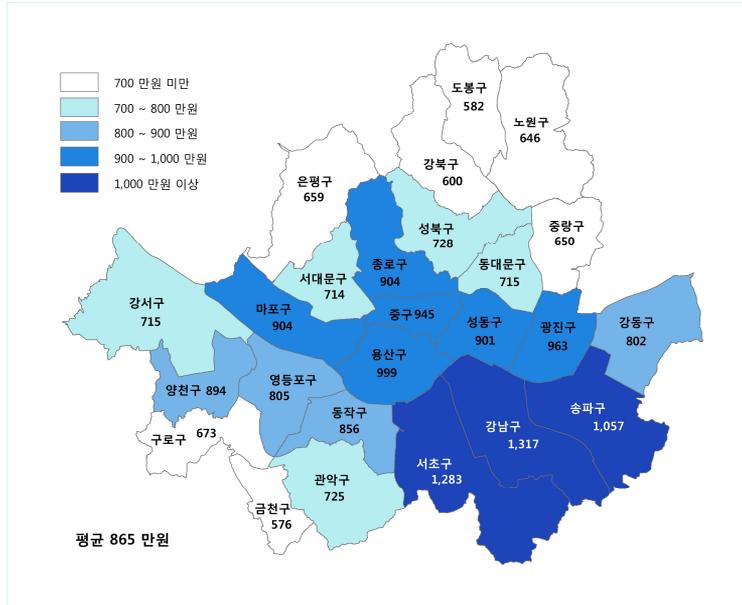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노원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진구, 용산구 순으로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1% 상승**
 - 광진구는 전반적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2호선 역세권과 동서울종합터미널로 인한 유입 및 학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전월대비 0.5% 상승
 - 용산구는 불확실한 부동산 경기로 매매보다는 전세 선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강남 지역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용산구로도 유입되며 전월대비 0.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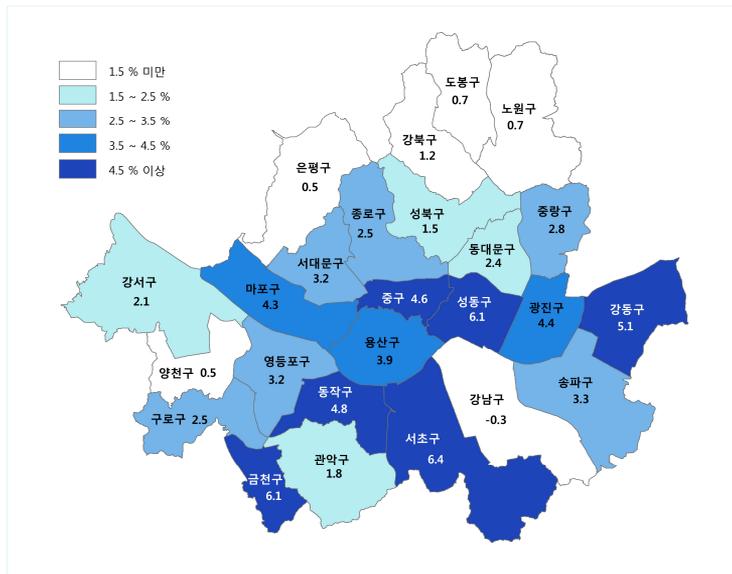
- **강남지역은 강서구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였고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가 다른 지역 대비 크게 상승하며 전월대비 0.3% 상승**
 - 서초구는 전반적으로 재계약 세대가 많은 가운데, 신반포 한신1차와 잠원대림의 재건축으로 이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월대비 1.0% 상승
 - 강남구는 서초 및 인근 송파 가락시영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발생되며 전월대비 0.9% 상승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64.8만원으로 전월대비(860.7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전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강남구(1,317만원), 서초구(1,283만원), 송파구(1,057만원), 용산구(999만원), 광진구(963만원), 중구(945만원), 마포구(904만원), 종로구(904만원), 성동구(901만원), 양천구(89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76만원), 도봉구(582만원), 강북구(600만원), 노원구(64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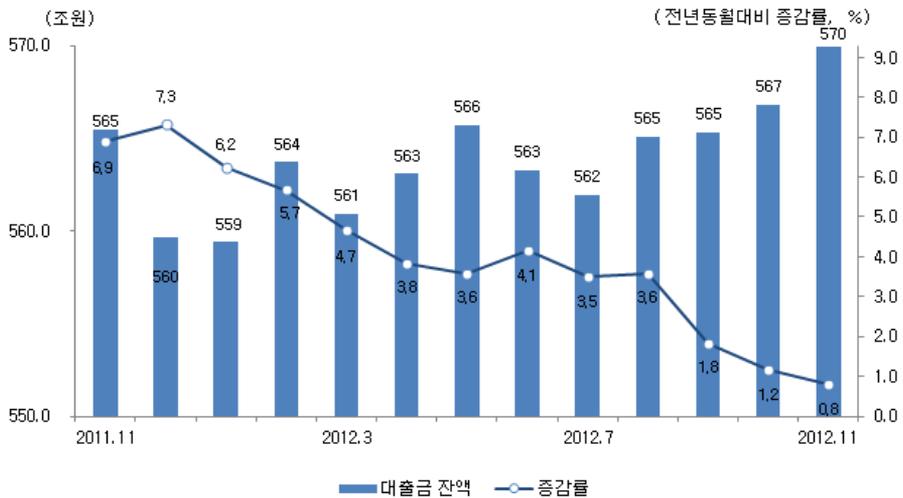
서울의 11월 가계대출과 주택대출 모두 전월대비 소폭 증가

■ 1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11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6조 7,640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3조 1,740억원(0.56%)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60조 143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9조 9,237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3% 감소, 5.4% 증가

■ 11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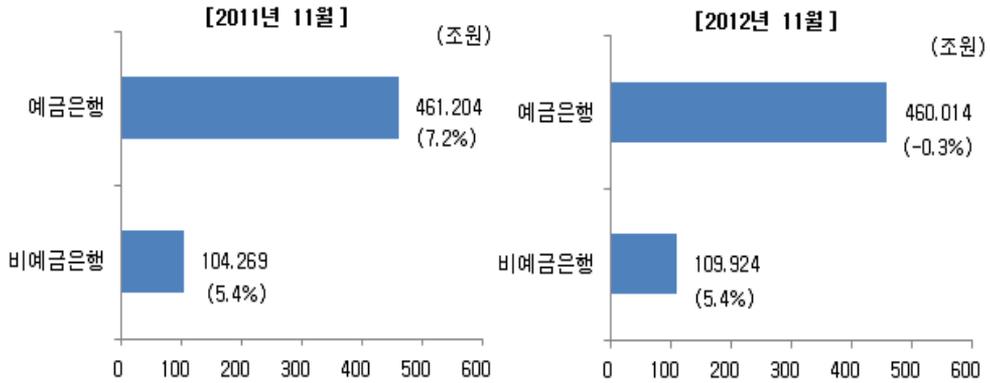
- 11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58조 3,31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 9,412억원(0.48%)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1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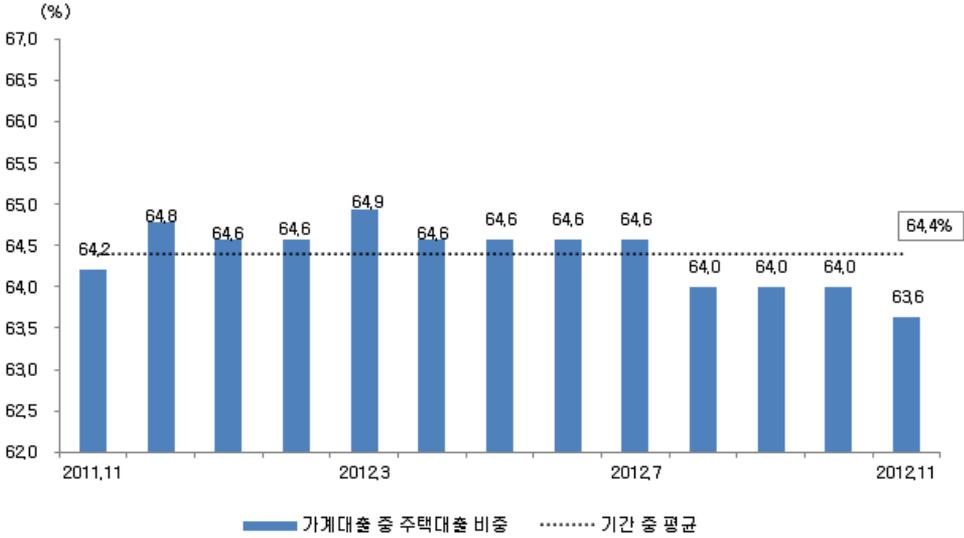
- 1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674억원으로 전월대비 372억원(0.2%) 소폭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476억원(63.6%)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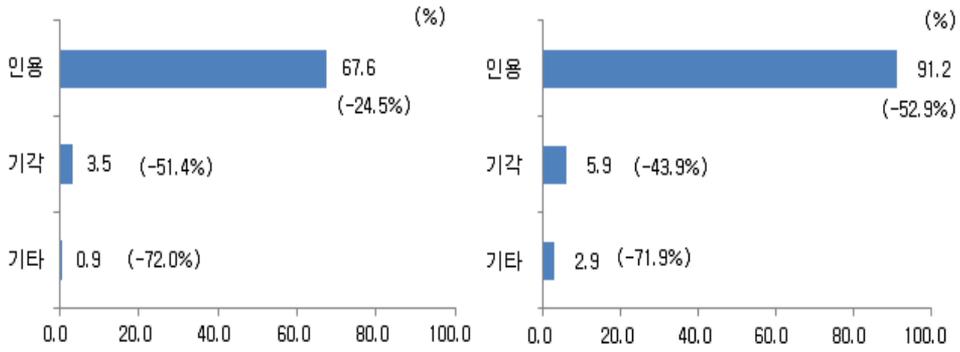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1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035명으로 전월대비 10.9% 감소, 전년동월대비 21.3%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51.4%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5.9%로 전년동월대비 43.9%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12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12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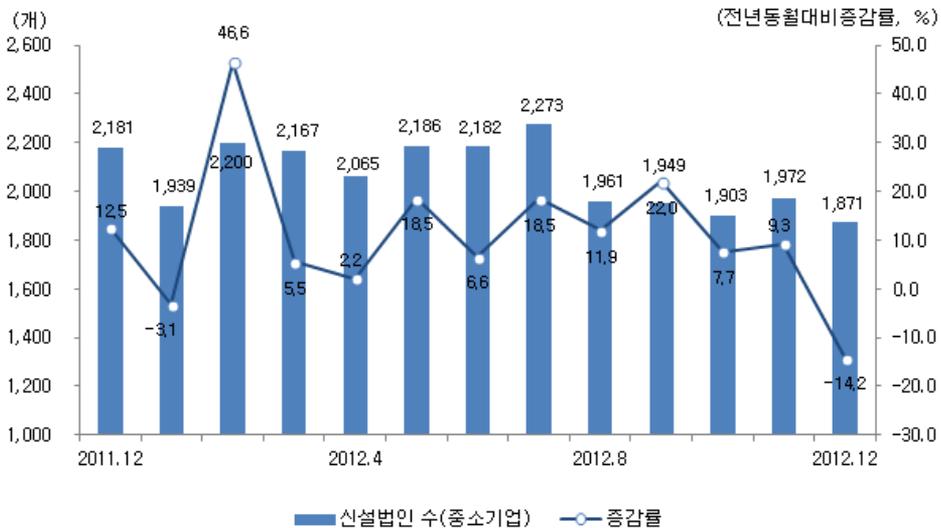
서울의 12월 신설 및 부도법인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12월 신설법인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71개로 전월대비 5.1%(101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4.2%(310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7.0%(6개)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3.2%(8개), 5.9%(96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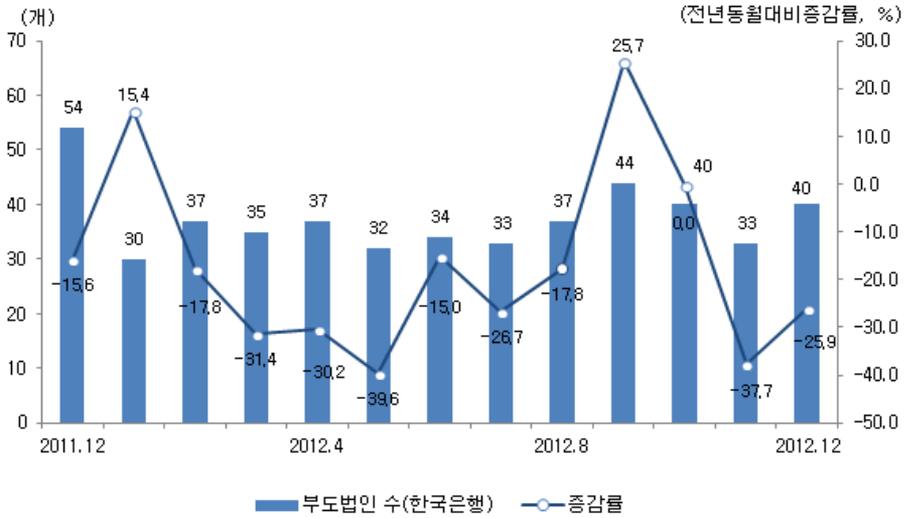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0개로 전월대비 21.2%(7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25.9%(14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전월대비 각각 29.4%(5개), 100%(4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0개로 전월대비 보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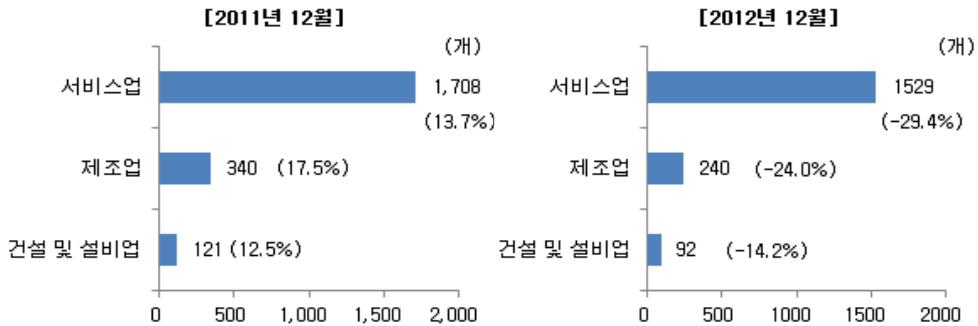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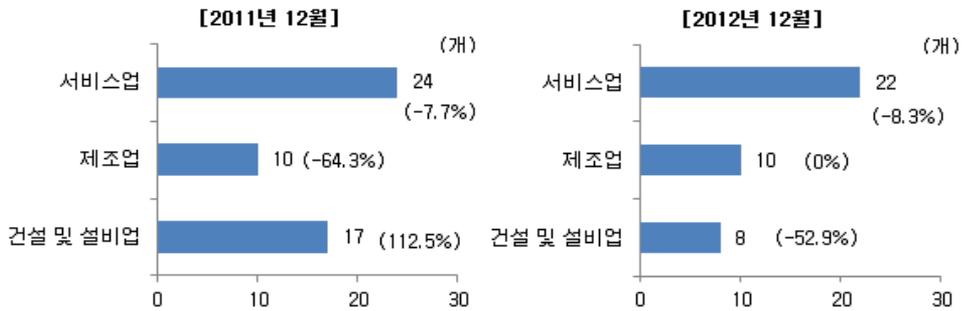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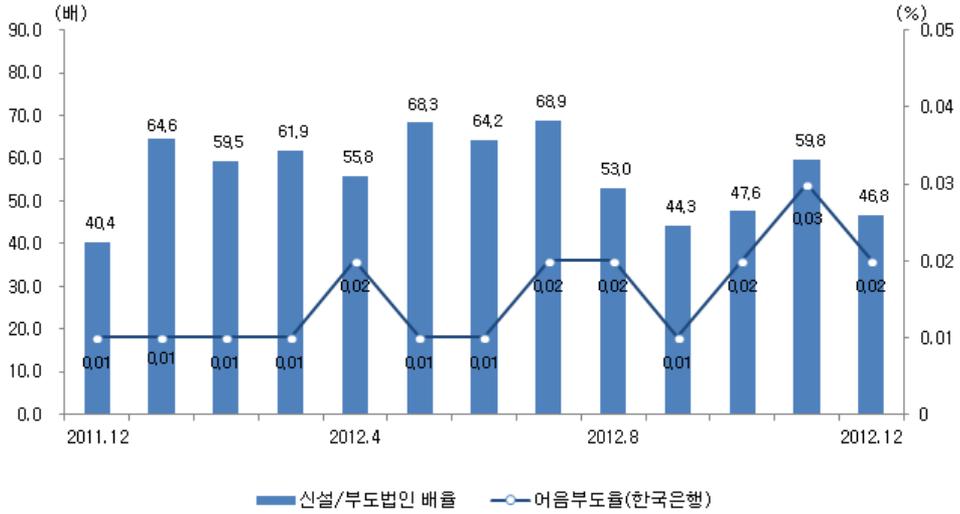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1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6.8배로 전월(59.8배)보다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12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전월대비 감소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40,471백만원, 1,637건으로 전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54.8%, 52.9%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3.9%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27.0%, 24.5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금액은 3.4%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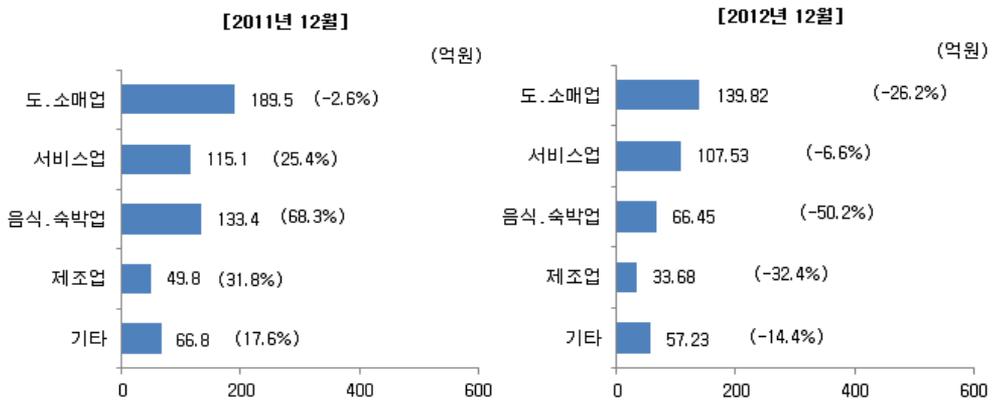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12월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3%로 전월(9.1%) 대비 0.8%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은 34.5%로 전월(37.8%) 대비 3.3%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8.2%로 전월(7.1%)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2.7%로 전월(35.7%)대비 3.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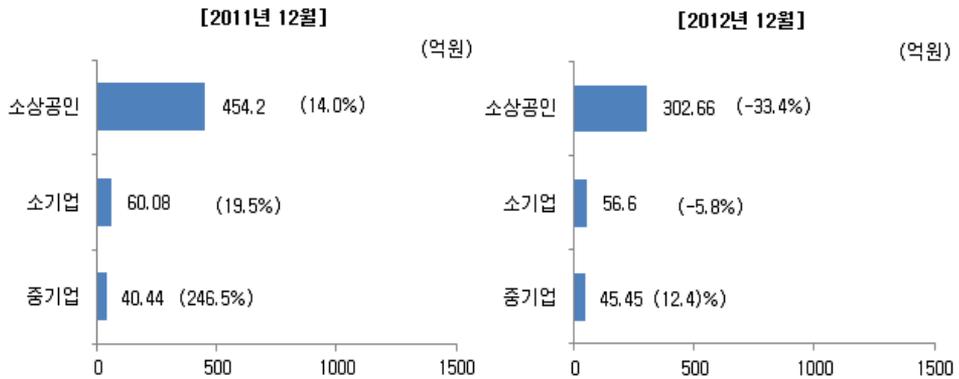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74.8%로 전월대비 10.5%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86.9%로 전월대비 6.4%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4.0%로 전월대비 5.2%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6.5%로 전월대비 2.5%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1.2%로 전월대비 5.4%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 6.6%로 전월대비 3.9%p 증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출·입·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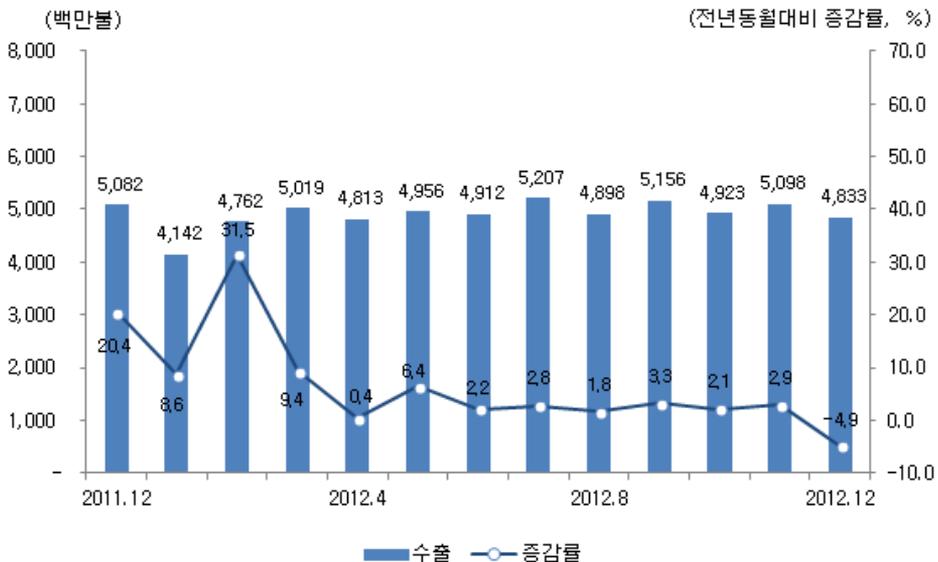
서울의 12월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12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수출은 48.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한 반면 수입은 104.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48.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였고 수입은 430.7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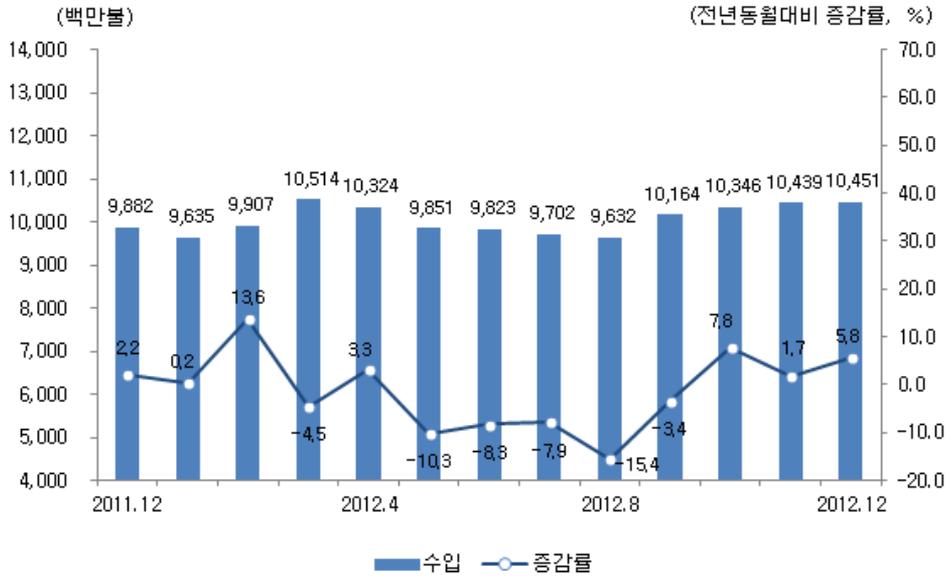
■ 서울의 12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75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편직물,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097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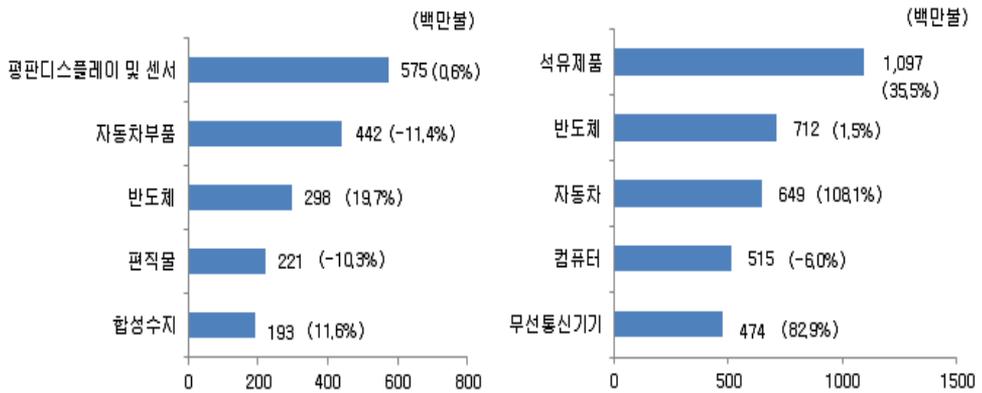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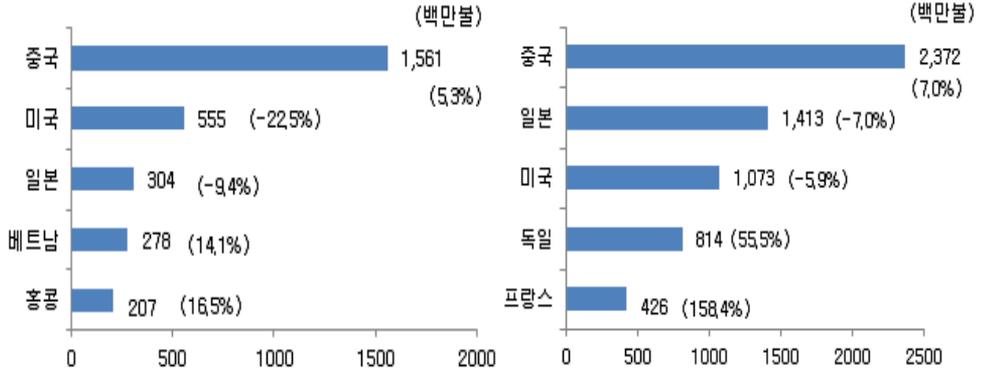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1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12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한 1,561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0% 증가한 2,372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1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1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